

종합적인 위험관리센터로 발전돼야



이 해 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전무이사〉

1. 머리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91.10.21)시행으로 '92.4.21 부터는 울산, 부천, 수원, 성남시의 특수건물(6층 이상 건물 등)소유자도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안전점검을 받게 되었다.

최근의 대형사고 증가 추세에 비춰 볼 때, 정기적으로 협회의 안전점검을 받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시에 신속히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바람직하다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험관리는 각종 위험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발견하여, 분석·평가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핵심기능으로 위험 통제(Risk Control)와 위험 재무(Risk Financing)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화보협회가 Risk Control 측면에서 국가 방재 분야에 기여해 온 점은 팔목할 만한 것이었다. 유치단계인 국내 방재업무를 지금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바로 화보협회였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LPG, LNG 등 다양한 연료의 사용확대와 첨단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석유화학 계열 공장, 전자공장 뿐만 아니라 고층건물 등에서도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업 발전의 급속화, 빌딩의 고층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의한 각종 사고 발생을 예상케하는 바, 이는 곧 고객들(특수건물 소유자 등)에 대한 다양한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협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화보협회의 역할

화보협회의 설립근거가 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법의 제정 목적은 네가지이다.

첫째,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것.

둘째, 신속한 재해 복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인명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

넷째,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보협회의 설립 목적이 예방 사업이 우선이며 보험 사업은 부수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풀이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설립 목적에 따라서 화보협회는 그 예방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빌딩의 고층화, 산업발전의 급속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오히려 화보협회의 위험관리 서비스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아무튼, 설립이후 화보협회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소화설비 확인검사, 조사, 연구, 계몽, 소화설비 개량자금 대출, 소방용기기의 기증 및 관련 보험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 고층건물 등 특수건물 소유자의 방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손실 경감 그리고 방재 기술 축적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화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임을 감안하여 보면 현재와 같이 화재위험 위주의 업무만을 계속 수행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향후 화재위험 위주의 안전점검, 위험관

리 업무에서 기계 위험, 건설 조립공사중의 위험, 배상책임 위험 등의 위험관리 업무까지, 또한 재산보호 측면 위주에서 인적 재해 예방 측면까지 그리고 기업위주에서 점포, 가정의 위험관리 업무까지 화보협회의 업무 영역과 그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위험관리센터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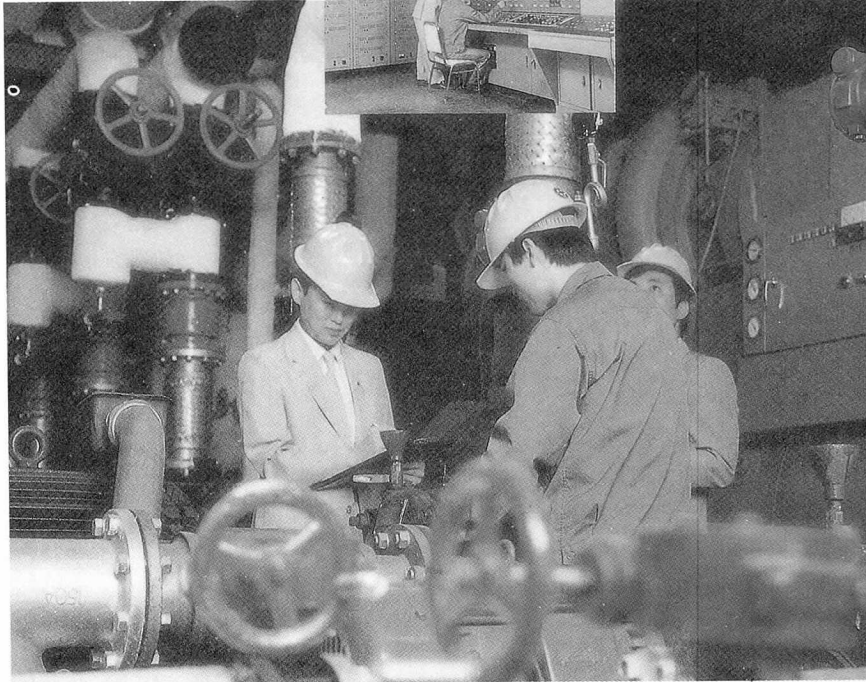
3. 향후 화보협회 활동방향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화보협회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화보협회의 위험관리 서비스가 다양화 되어야 하겠다.

앞서 설명한 취급 위험의 영역 확대도 시급하고, 또한 특수건물 시가결정 기준액표를 현실화 함으로써 계약자내지 피보험자에게 보상의 혜택을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이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의 시가보다 적은 감정이 위주로 보험 가입이 되고있어 손해 발생시 비례보상이 되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보험가입금액을 현실화시키면서 적절한 요율을 적용하면 보상에서 야기되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험에 추가시킬 수 있는 각종 특별약관을 적극 활용하여 특약 관련 사고시 충분한 보상과 보험료 수입의 증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이나 공장에 건설단계에서부터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준공후에 지적사항을 받고 난감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시 재복구를 위한 설계시점부터 각종 자문을 행하고 정기적 위험진단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사고재발 방지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기업의 위험관리자 양성

에 적극 협조해야 하겠다.

재산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부보험과 담보오류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기업에 위험관리자를 양성시킴으로써 담보 선택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또한 보험가입금액이 적으면 보험요율이 저렴할 것이라는 종래의 인식을 바꿀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관리자를 통하여 기업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은 물론 보험판매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다.

또한, 기업의 위험관리자에 대한 기술력 제고를 위한 교육, 견

학, 지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며, 신기술의 꾸준한 보급과 지도를 통해 기업의 위험관리 능력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방재 기술 등을 바탕으로 방재시험소의 교육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화보험회 자체의 인재 양성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에 화보험회가 전문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전문인의 분야를 세분하여 보험계약자가 관심있는 분야(예 : 환경 오염, 배상 책임 등)를 추가하였으면 좋겠고, 또한 Surveyor한 사람이 위험진단 물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자문해 줄 수 있도록 관련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가입자에 대한 홍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많은 특별약관이 있으나 홍보가 미약하여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각종 표지(위험, 피난구 등) 및 팜플렛, 표준위험관리지침 등 각종 책자의 발간, 보급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대형사고의 사진전시회와 영화상영을 불조심 강조기간인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특수건물지역 공

공장소에서 위험관리 세미나와 겸해서 실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보험가입자가 방재, 보험 등 위험관리에 관한 어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화하면 자동 응답이 가능하도록 전화 자동응답 제도의 실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외국의 선진 위험관리 기법이라든지, 국내·외 대형사고 사례, 위험관리 성공사례 등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분석·개발업무를 강화해야 하겠다.

우선, 화보험회가 주동이 되어 위험관리 분야 특히 Risk Control 분야의 용어를 시급히 통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용어조차도 통일이 안된 경우가 있어 혼란이 올 수 있는 바, 관련기관과의 협의하에 용어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ML(추정최대 손해액) 등을 각사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바, 연구 개발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 자재 등의 신제품, 신기술이 개발된 경우와 위험 공정 등을 신속히 연구·분석하여 손해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실험·조사·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화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난·폭발·자동차 사고·항공 사고·해상 사고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이제 울산, 부천, 수원 및 성남시에 소재하는 특수건물은 화보험회의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사고 예방, 손해 경감,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 등 Loss Control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계속 특수건물 적용지역으로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 화보험회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앞서 설명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고객에 수준높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는다.

기상이변과 숙련된 인적자원 부족 그리고 안전의식 해이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대형사고의 계속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보험회가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위험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 보급시켜 나가는데 전력함으로써 손해보험 사업의 「종합적인 위험관리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㉞